

낚시전문가에 의한 海岸地形景觀의 分類와 그 形態에 관한 研究

— 낚시 전문잡지의 기사 분석을 통하여 —

姜 榮 祚

東亞大學校 造景學科

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Spatial Form of Coastal Landscape according to Anglers

-From analysis on articles of specialized magazine for fishing-

Kang, Young-Jo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lassification and the spatial form of the named coastal landforms which are collected from the specialized magazine for fishing as a collective representative.

The Coastal Landform, viewing from the fishing activity, is divided into 9 types which are Yo(여, sunken rock), Kaepai(갯바위, rock-ribbed coast), Jolbyeok(절벽, cliff), Koppuri(꽃부리, spit), Chagalmadang(자갈마당, shingle beach), Kanchulam(간출암, intermitent rock), Mulgol(물골, valley sea), Kaepul(갯펄, tidal flat), Sajang(사장, sandy coas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9 types of landform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theory on conservation and rehabilitation of coastal landscape.

1. 머릿말

(1) 연구의 목적

예로부터 산악경관의 절경으로 금강산을 제일로 친다. 그 금강산과 같이 수려한 해안 경승지를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하는 뜻에서 해금강이라 칭하고 있다. 이러한 해금강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뛰어난 해안 절경처가 많다.

사장과 바위, 절벽 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해안은 경관적인 자원 뿐 아니라 어로행위를 통한 생산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낚시, 다이빙, 윈드 서핑 등 해양 스포츠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강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해안 공간이 공업 용지, 대규모 주거 단지의 조성 등으로 매립되는 등 점차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효율적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안선의 인공적 개발은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레크리에이션의 장으로서의 해안은 공간형태의 확일성과 해양 생물의 다양성의 결여, 원풍경의 상실 등을 초래하였다.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해안경관 자원의 보전이 요구되며 훼손된 곳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물의 서식환경이면서 해안 경관의 고유성을 담보하고 있는 미지형의 경관적 특색과 나아가서는 환경전체의 특질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생물의 서식환경을 미지형과 수질 또는 해류로 변별하고 있는 낚시행위에 주목한다. 낚시꾼이 낚시행위를 위하여 해안 지형을 변별한 결과로 생성된 지형공간의 명칭을 수집하여 그 명칭이 담보하고 있는 공간형태의 특징을 기술하면 생물의 서식환경인 해안지형의 형태적 특징을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낚시전문가에 의하여 분류된 해안지형경관을 수집하고 그 형태적 특징을 고찰하여 지형명칭이 나타내고 있는 지형형태

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지형에 관한 과학적인 지형 분류는 크게 암석해안과 사질해안으로 나누어진다. (김상호, 1980:104)

암석해안은 파도와 지각의 변화에 따라 해식애, 파식대, 해식동 등으로 나뉘며, 사질해안은 퇴적물의 상태에 따라 사빈, 사주, 석호, 사구, 간석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지형 분류의 관심은 지형의 성인과 발달에 있다. 따라서 분류된 지형이 등가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한편 낚시전문가는 낚시행위와 관련된 시각적, 행위 지원적인 의미에서 지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지형생성의 원인보다는 지형과 생물의 서식공간과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암석해안의 미지형에 관심을 두로 있다. 따라서 장소의 창조를 지향하는 조경학에서는 과학적인 지형분류에 의한 해안 지형의 파악에 비하여 낚시행위라고 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기반을 둔 지형경관의 분류가 지형 보전의 논거와 복원의 기술적지원이 필요한 지형부위를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수집된 지형공간의 명칭과 거기에 각인된 지형경관의 특징은 해양 생물자원과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낚시행위라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해안경관의 보전과 복원에 귀중한 지식이 될 것이다.

(2) 관련 연구

지금까지의 해안공간에 관한 연구는 방재나 환경보전적인 측면에서 表砂나 지형변화에 관한 연구와 경관 또는 리조트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다.

전자는 연구례가 많으나, 주로 사장에 관한 연구이다.

후자는 해안지형의 경관적 특징에 관한 것으로 공간인식의 영역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齊藤, 1975) 대상지는 砂場에 국한되어 있어 전체적인 해안환경을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해안의 별장지 또는 해수욕장의 입지를 다룬 연구(安島, 1987)가 있으나 역시 해안의

지형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또한 지명에 투영된 공간인식을 다루고 있는 연구(강영조, 1993)가 있으나 해안지역의 구체적인 지형적 특징을 논급하고 있지는 않다.

2. 연구의 방법

(1) 지명과 지형경관의 인식

특정의 사회집단 또는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일종의 풍경적이미지가 공유되어 있다. 이를 풍경의 집단표상이라고 한다. (中村良夫, 1982)

집단표상(collective representation)이라는 용어는 사회학자인 듀르켐이 제기한 개념이다. 개인의 현실과는 다른 집단의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 집단표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의 현실과 개인의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서로 견인하고 반발하고 이합하면서 사회적 현실로서 樣式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デュルケム, 1978)

풍경의 집단표상은 이러한 집단표상 가운데 특히 풍경의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경관평가가 인간에게 공통하는 환경지각, 평가를 기초로 하면서도 경관체험이 오히려 이러한 집단표상을 실경에 투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풍경의 집단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써 문학, 사상, 종교상의 경전, 지명 등 언어에 의한 것과 정원, 회화 등 시각예술을 매개로 하는 것, 그리고 명소와 같이 특정의 실경 또는 그것의 상징물 등이 있다. (中村良夫, 1982)

본연구는 언어에 경관 이미지가 공유되어 있는 지명 즉 공간명칭을 통하여 해안지형의 집단표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지명이라는 언어와 경관체험과의 관계를 정리해 둔다.

언어의 사용자는 '그것을 통하여 세계를 보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세계상은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하여 규정된다. 처음부터 규

정되어 있다' 라고 언어학자 무난은 말한다. 경관이라는 현상은 체험하는 인간의 심리적 문화적 상황이 그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된다. 워프(Whorf)는 이러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한다.

“어떠한 사람도 자연을 완전히 무색 투명하게 서술할 수는 없다. 자기가 극히 자유롭다고 여겨질 때조차 어떤 型의 해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型을 언어라고 한다. “우리는 자연을 우리의 모국어에 의하여 그어진 선에 따라 분할한다. 우리가 현상의 세계에서 추출하는 카테고리나 유형은 자연 그 자체에서는 꺼집어내지 못한다. 그것과는 거꾸로 세계는 만화경적인 인상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조직화한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언어체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자연을 분절하고 그것을 개념으로 조직하고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Whorf, 1956)

지명을 명명하는 행위는 눈 앞에 펼쳐져 있는 경관을 등가적이며 연속적인 것으로 두지 않고 의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불연속적으로 분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안 지형 경관에 있어서 지명으로 명명된 것은 해안 경관을 인식하는 데에 급소가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급소가 되는 곳을 조직화함에 따라 만화경적인 해안 경관을 질서지워서 인식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언어로써 지형경관을 분류한 지형명칭이라는 집단표상의 수집과 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하고 있다.

(2) 지형 명칭의 수집과 통용 확인

지형명칭이라고 하는 집단표상의 수집 방법으로는 방언 수집 등 현장 면담에 의한 직접 수집과 전문 용어집, 사전류 또는 전문가의 문헌 등에서 사용되는 어휘 등 문헌에 의한 수집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시전문잡지인 “월간 남

시”1992년 9월호 부터 1993년 9월호까지 1년치의 기사에서 산견되는 지형명칭을 수집하였다. 낚시 전문잡지에 게재되는 기사에는 사전류 보다는 다양한 지형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 사전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낚시터 소개 기사에서 1회이상 사용된 지형명칭은 모두 수집하였다. 동일한 낚시터의 소개 기사일지라도 기사 작성이 다른 경우는 모두 지형명칭의 수집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낚시터의 소개 기사는 지문뿐만 아니라 약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약도에서 사용된 지형명칭도 수집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낚시터에 관한 기사 110개에서 수집한 지형명칭은 11종이었다.

부산시의 태종대와 다대포, 물운대, 송정 등지의 해안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꾼과 낚시터 주변의 낚시 용구점을 대상으로 11종의 지형명칭의 인지 여부와 지형명칭에 대응하는 실제의 공간을 지시하거나 그 형상을 설명하게 하여 지형명칭에 대응하는 지형공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 본 연구에서 수집한 지형명칭은 낚시꾼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보통명사이며 이것을이용하여 釣果와 魚種을 고려한 낚시의 포인트를 변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잡지에 게재된 기사 작성자의 직업

110개의 낚시터에 관한 기사를 쓴 사람은 총 67명으로 그들의 직업분포는 표1과 같다.

67명 가운데 19명(28.4%)이 낚시점을 경영하고 있으며 정확한 직업은 알 수 없으나 낚시회의 회원으로 소개된 것이 16명(23.9%), 현지에 있는 잡지의 모니터가 8명(11.9%), 월간 낚시의 기자가 6명(8.9%)이다.

개인 사업가인 11명(16.4%) 역시 낚시 전문지에 기사를 쓸 정도이니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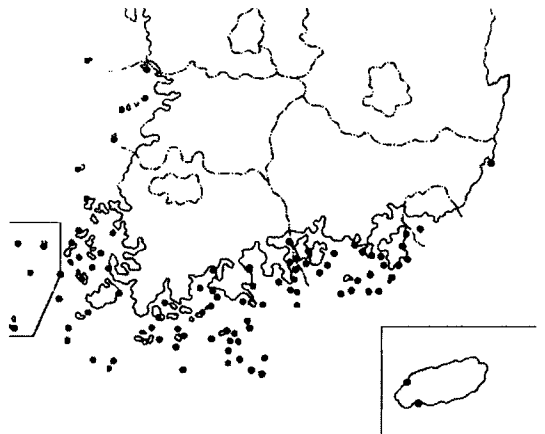
그외 낚시배 안내인이 2인(3.0%)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지형명칭은 낚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4) 기사에 소개된 낚시터의 공간분포

기사에 소개된 낚시터를 지도위에 표시한 것이 그림1이다. 주로 우리나라의 남서부 해안 지역이다.

따라서 본연구는 남서해안의 낚시터에 관한 기사에 출현하고 있는 지형공간의 지형명칭을 수집한 셈이 되어 자료의 편중을 지적할 수도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수집한 지형명칭을 부산지역의 낚시전문점의 경영인과 낚시꾼도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수집한 지형명칭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범용성이 있는 보통명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림1) 기사에 소개된 낚시터의 공간분포

〈표 1〉 기사 작성자 직업

직업	명	%
낚시점 경영	19	28.4
낚시회 회원	16	23.9
사업가	11	16.4
현지 모니터	8	11.9
잡지 기사	6	8.9
배 안내인	2	3.0
그 외	5	7.5
계	67	100.0

3. 해안지형경관의 분류와 형태

(1) 지형명칭으로본 해안 지형의 분류

110개 낚시터기사에서 출현되는 지형명칭을 살펴보았다. 낚시터를 소개하는 기사는 글쓴이의 문체에 따라 다양한 지형이 기술될 수도 있고 동일한 지형명칭이 반복되어 기술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하나의 기사에서 출현하는 지형명칭을 종류별로 정리하여 낚시터를 설명하는데 사용한 지형명칭의 출현빈도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같은 지형명칭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단 한번만 사용되는 경우를 등가적으로 취급하였다.

낚시포인트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한 지형명칭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종이었다.

이들 지형은 각각의 낚시터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낚시터의 지형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지형명칭은 여로 110개의 기사 가운데 79개의 기사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전체 기사의 72%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갯바위로 73개의 기사에서 사용되었으며 전체 기사의 66%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절벽 또는 직벽이 20개(전체 기사의 18%) 기사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14개의 기사에서 사용된 곳부리, 13개의 기사에서 사용된 자갈마당 또는 자갈 발, 13개의 기사에서 사용된 간출암, 12개의 기사

<표 2> 지명 명칭의 출현수

지형명칭	개재 기사 수	전체기사 110개에 대한 비율(%)
여	79	72
갯바위	73	66
직벽	20	18
곳부리	14	13
간출암	13	12
자갈마당	13	12
물굴	12	11
갯펄	4	4
몽돌지대	3	3
여밭	3	3
사장	2	2

에서 사용된 물굴이 있다.

몽돌지대, 갯펄, 사장 등은 비록 기사에서 사용되는 빈도는 적지만 해안지형의 특색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여밭은 여가 많은 장소를 일컫는다. 몽돌지대의 몽돌은 자갈보다는 큰 둥근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갈마당과 흡사한 지형이다. 이들의 지형을 각각 여와 자갈마당에 포함하면 9종의 해안 지형의 명칭을 얻을 수 있다.

지형 명칭은 우리의 마음을 조직하여 막막한 해안의 지형경관을 그 언어가 지칭하고 있는 지형단위로 분절하여 지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형명칭으로 명명된 지형 분류 단위는 해안 지형경관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급소와 같은 곳이다. 따라서 낚시 전문가는 해안의 연속적인 지형경관을 지형명칭을 통하여 9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9종의 해안 지형은 해안 지형 경관의 보전 또는 복원의 기초단위라고 할 수 있다.

(2) 지형명칭공간의 형태

(가) 여와 여밭

여(磯)는 국어사전에 따르면 물 속에 있는 바위를 일컫는다. 여는 제주도의 이상향이라고 하는 이어도의 어원이기도 하는 것으로 수면보다 약간 얇은 곳에 있는 암초와 같은 지형이다.

그러나 낚시행위에서 사용하는 여는 국어사전적인 의미인 물속의 암초가 아니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과 가까이 있는 작은 바위섬들을 일컫는다. 썰물때 보이는 여를 “잠길여”, 보이지 않는 여를 “속여”라고 한다.

여는 고기들의 산란 장소이기도 하고 물때에 따라 이동하는 물고기들이 쉬는 장소이기도 해서 낚시꾼에게는 포인트로 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여는 밀물이 되면 잠겼다가 썰물에서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있어 낚시터로는 부적절하나, 초 썰물이후에만 배를 대기하여 바위가 드러나 있는 사이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장소로 이용하기도 한다. (유강현, 1992)



(그림2) 여(장소:태종대)

여는 그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다. 여의 윗부분이 평평하고 일정한 넓이를 가지고 있다면 그곳이 마치 마당과 같다고 해서 “마당여”라고 한다.

또 여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여밭이라 일컫는다. 어떤 사물이 많이 있을 때 밭이라는 말을 어미에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밭도 같은 경우이다. 고기의 산란이나 휴식처로 좋은 장소인 여밭은 낚시의 포인트로 중요한 장소이다.

(나) 갯바위

갯바위는 개와 바위의 합성어이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개는 바다물이 드나드는 넓은 곳 또는 바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갯바위는 바닷가에 있는 바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갯바위는 낚시전문서적에서 소개하는 갯바위낚시의 행위적 특징으로 미루어 보건데 바위가 험하고 남풍이 불어 너울파도가 덮치기도 하여 위험이 따르는 곳이다. (박 선현, 1992) 그런데 연속적으로 파도가 밀려와서 흰포말이 생기는 갯바위는 풍성한 조과가 기대되는 곳이다. (송수창, 1992)

갯바위는 “파도가 조금만 높게 일어도 배를 갯바위에 접안시키는 기술 또한 부족해 낚시꾼들의 애간장을 태울” (유영근, 1993) 정도로 배가 닿을 정도의 시설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불락, 망상어, 학꽂치 등이 낚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돌돔, 흑돔도 기대할 수 있는 장소가 갯



(그림3) 갯바위(장소:물운대)

바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과가 시원치 않으면 편편한 갯바위에서 휴식을 겸하여 던질 낚시를 하면 최소 노래미, 붕장어, 숭뱅이 등을 낚을 수 있다.” (남궁용, 1992)는 기술로 미루어 갯바위의 바위가 대개 험하지만 민만한 곳도 있는 것은 물론이다.

갯바위는 수온의 변화가 심하여 때에 따라 낚시의 종류를 바꾸어야 하는 등 (이정형, 1992), 다양한 낚시 행위를 해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태종대와 물운대에서 표면의 요철이 심하고 발을 옮기기가 어려운 갯바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파도가 치면 물보라가 높게 튀어 오르기도 하지만 낚시꾼은 이러한 갯바위의 끝까지 나아가서 치를 던지기도 한다.

(다) 직벽과 절벽

갯바위가 수직적으로 치솟아 있는 경우 이를 직벽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발을 붙일 수 없고’ (송수창, 1992), ‘걸어서는 더이상 갈 수 없으며’ (이근원, 1992), ‘발판이 없어서 낚시가 불가능한’ (오세호, 1992) 수직으로서 있는 거대한 바위 또는 해안단구를 일컫는다.

절벽과 직벽의 형태적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은 없으나 낚시터에서 낚시꾼들과 면담하고 현장을 관찰한 결과 고저차가 심한 해안단구의 경계부위를 절벽이라고 하고, 갯바위가 발판이 없을 정도로 수직



(그림4) 직벽(장소:태종대)

적인 형태를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직벽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라) 꽃부리

꽃부리는 꽃과 부리의 합성어이다. 꽃은 끝이 뾰족한 부위를 일컫는 것으로 꽃, 꽃 등이 파생어이다. 부리는 새의 부리와 같이 역시 끝이 뾰족한 부위를 일컫는다. (정호완, 1991:80-84)

낙시터에서의 꽃부리는 갯바위가 돌출된 부분을 일컫는다. “장승포 북동쪽으로 좁고 길게 뻗은 꽃부리로 의해 쪽으로 주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장창락, 1993)라는 기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깊은 바다에서 사는 어종인



(그림5) 꽃부리(장소:물운대)

돌돔을 노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꽃부리는 해안선이 바다쪽으로 돌출한 부분을 일컫는다.

또한 이 지형은 돌출된 관계로 조류의 흐름을 막아 물살을 빠르게 한다.

꽃부리의 안쪽에 있는 만을 골창이라고 하는데 꽃부리의 영향으로 와류가 형성되어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부유물이 모이게 되는 곳으로 낙시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

(마) 자갈마당과 몽돌지대

자갈마당은 만곡진 해안의 안쪽에 해안선의 재료가 작은 자갈돌로 이루어진 평평하게 경사진 곳을 일컫는다. 이곳은 여름철에 해수욕을 할 수 있어서 피서지로도 적격이지만 (이근원 b, 1992) 찌낙시를 하면 농어가 잡히기도 (임영삼, 1992) 하는 낙시의 포인트로도 인식되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몽돌지대가 있다. 몽돌은 자갈 보다 굵은 둥근 돌을 일컫는다. 따라서 몽돌지대는 이런 둥근 돌이 깔려있는 水際部 또는 해저일대를 말한다. 흔히 자갈밭 또는 자갈 마당에 비하여 돌의 크기가 크고 균일한 것이 특징이다.

몽돌지대는 “낮에는 뱀어돔, 망상어, 감성돔, 밤에는 까지맥이 등” (임영삼, 1993)을 노릴 수 있는 장소이다.

사진6은 자갈마당의 예로 부산시 소재 태종대의 자갈마당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6) 자갈마당(장소:태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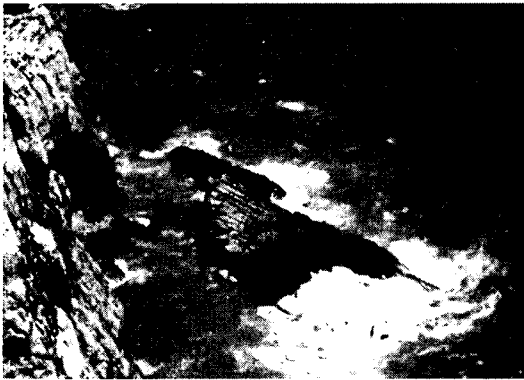
(바) 干出岩

간출암은 만조 때에는 물 속에 잠기며 간조 때에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바위를 일컫는다.

“썰물 포인트로는 들몰시 잠겨 있었던 간출암이 드러나고 부터이다”(유강천, 1992)라는 기술로 미루어 보면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잠길여”에 해당하는 지형으로 여와 같이 물고기의 은신처가 되는 장소이다. 그러나 수중여 또는 잠길여와 간출암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와 동일시 할 수 없다.

여는 해저암초라고도 불리우는 만큼 바위의 표면이 거칠고 크기가 작은 섬을 연상할 만큼 큰데에 비하여 데에 비하여 간출암은 바위의 표면이 부드럽고 그 크기 또한 여에 비해서는 작은 것으로 여겨진다.

태종대의 간출암을 그림7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7) 간출암(장소:태종대)

(아) 물골

골은 “두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든 곳”(박용수, 1989:508)을 이른다. 따라서 물골은 물에 있는 골을 이르는 것으로 물 속의 지형이 좁고 帶狀으로 움푹 패어져 있는 부위를 일컫는다.

물골이라는 지형은 “물 속에 형성되어 한 여름에도 가끔 불박이 대형 감성돔이 출몰하는 곳”(유강천, 1992)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간출암 언저리의 깊은 수심 또는 여와 여 사이”(이근원a, 1992)를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물골은 해저의 골과 여와 여사이의 움푹 패어 든 곳이다.

(자) 갯펄

갯펄은 바닷가의 벌판을 일컫는데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박용수, 1989:507)이다. 이곳은 육지와 해역의 경계부로 간조시 바닥이 드러나는 곳이다. 계화도의 갯펄은 망둥어 등이 잡히는 곳이라고 한다.(김경삼, 1992)

그림8은 다대포의 갯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8) 갯펄(장소:다대포)

(카) 사장

砂場은 모래가 깔려있는 바닷가이다. 수집한 기사에서는 사장에서의 낚시행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지만 해면으로 향한 완만한 경사와 접근이 용이한 표토재료로 인하여 레크리에이션 수용력이 가장 높은 장소이다.

지금까지 낚시터 소개 기사에서 수집한 9종의 지형명칭과 각각의 지형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본연구에서 고찰한 결과를 과학적인 지형분류와의 관계에서 되새겨보면 낚시전문가에 의한 지형분류는 사실해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암석해안 지형의 변별에 예민하다. 그 이유로 낚시 전문가들의 낚시행위의 장소로 암석해안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9는 이들 지형의 특징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형명칭	여와 여밭	갯바위	직벽 또는 절벽	곶부리
블록 다이어그램				
자갈마당 또는 몽돌지대	간출암	물골	갯펄	사장

(그림9)낙시터 소개 기사에서 수집된 지형의 블록 다이어그램

4. 맺음말

본 연구는 낙시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9종의 지형명칭을 수집하여 그 지형명칭의 명명 근거가 되는 지형공간의 형태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해안 지형 경관 인식에 중요한 9종의 지형명칭이 수집되어 그것에 대응하는 지형의 형태적, 공간적 특징을 알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안 경관의 지형적 특징을 담보하고 있는 지형부위를 지적하고 있어서 해안 지형 경관의 보전과 복원의 要所를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9종의 지형형태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3 참조)

(1) 지형형태의 비교

9종의 지형공간의 형태는 표3과 같이 요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 갯바위, 직벽, 곶부리, 간출암은 형태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자갈마당, 물골, 갯펄, 사장은 공간형상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

〈표3〉 해안 지형의 공간 특성 비교

지형	지형 형태	낙시행위의 지원	접근성	해안경관의 시점장	시선 집중성
여와 여밭	凸	○	○	○	◎
갯바위	凹	◎	◎	◎	◎
직벽 또는 절벽	凸	○		◎	◎
곶부리	凸	◎	◎	◎	◎
자갈마당	凹	○			
간출암	凸				◎
물골	凹				
갯펄	凹		◎		
사장	凹		◎		

convex의 지형은 경관성이 강하여 시선에 노출되기 쉽다. 지형 윤곽선의 보전과 복원에는 이러한 지형을 체험하는 시점장의 선정이 중요하다.

concave의 지형은 공간성이 강하여 수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적합한 장소이다.

(2) 낙시행위의 지원

낙시 행위의 지원하는 장소로서 갯바위, 곶부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소는 여와 여밭,

간출암, 물골 등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고, 해류와 수온이 적당하여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어야 저명한 낚시 포인트가 된다.

(3) 접근성

접근성이 뛰어난 곳은 사장, 갯펄, 자갈마당 등이다. 이러한 장소는 완만한 경사와 부드러운 표토재료로 인하여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체재형 수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갯바위는 그 형상에 따라 배를 대기에 도 어려운 곳도 있으나 대체로 수면에 다가 설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바위의 표면이 매우 거칠다. 그러나 평탄한 부분이 일정 규모 이상 확보되는 곳도 있어서 갯펄이나 사장, 자갈마당과는 다른 형태의 체재형 수변 레크리에이션 공간이기도 하다.

(4) 해안 경관의 시점장

절벽, 수면, 파도, 여, 섬 등의 해안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시점장으로서 갯바위, 꽃부리, 직벽을 들 수 있다.

갯바위, 꽃부리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흰 포말이 솟구치는 파도와 해변 또는 해저의 다양한 근거리경관을 체험할 수 있으며 직벽 또는 절벽은 시야가 열려져 있으면 파노라마한 경관의 체험을 통한 해안 경관의 전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점장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지형은 해안 경관 체험의 골격을 형성하는 곳이며 이러한 곳에서의 체험을 편집하여 지역 전체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따라서 해안 경관의 체험을 증폭하게 하는 인상적인 修景수법이 발생되어야 할 곳이다.

(5) 시선 집중성

해안지형을 체험자의 눈에 잘 뜨이는 시선 집중성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여와 갯바위, 꽃

부리, 직벽은 視認性이 높은 지형이다. 해안지역의 관광사진에는 대개 이러한 지형이 피사체가 된다.

잠길여, 물속여는 해변의 수위에 따라 가지 형태가 변하여 수면의 고저차가 강조되어 체험되어지며 갯바위, 꽃부리, 절벽은 육역과 해역의 경계부위로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절벽은 그 범위가 넓어 지역의 대표경관인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지형이 인상적으로 체험되는 것은 그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시점장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형공간의 형태적, 공간적 보전과 복원 뿐 아니라 시점장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 · 인용문헌

1. 강영조(1993), "지명 명명공간의 형태와 상모적 지각의 지형 보전적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1(2):68-79
2. 김경삼(1992), "마릿수 씨알에도 즉석 회맛도", 월간낚시 10월호:289
3. 김상호(1980), 『地理學概論』, 一潮閣
4. 남궁용(1992), "주말 출조로도 마릿수 푸짐한 근해 감성돔 갯바위터 5", 월간낚시 10월호:285
5. 박용수(1989), 『우리말 갈래사전』, 서울:한글사
6. 박선현(1992), "송악산 진누룩터", 월간낚시 9월호:313
7. 송수창(1992), "가볍고 견고한 채비로 짜릿한 쾌감", 월간 낚시 9월호:317
8. 신기용, 신기철(1975), 『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9. 유영근(1993), "홍도, 구령말, 아랫 두령이", 월간 낚시 3월호:281
10. 유강현(1992), "태풍 뒤 끝을 공략하라", 월간 낚시 9월호:296
11. 유강현(1992), "농어바위, 덕우도 굴 앞, 황제도 땅콩섬", 월간 낚시 11월호:274
12. 이근원(1992a), "추자도 첫 시즌 감성돔 조황 사이클 맞추면 호황", 월간 낚시 12월호:269
13. 이근원(1992b), "만제도", 월간 낚시 12월호:311
14. 이정형(1992), "독섬, 밤낚시, 쪼낚시에서 감성돔, 농어 기대", 월간 낚시9월호:307
15. 임영삼(1992), "7물에서 12물 사이에 급류지대를 노려라", 월간 낚시 11월호:307
16. 임영삼(1993), "불락 풍성한 충무 오곡도", 월간 낚시 1월호:300
17. 장창락(1993), "양지암서 해금강까지 대형 감성돔 속출", 월간 낚시 1월호:282

18. 정호완(1991), 『우리말의 상상력』, 서울:정신세계사:80-84
19. 安島博幸(1987), “リゾート地域整備構想と地域振興”, 『都市問題研究』, 東京:84-94
20. 齊藤 潮(1982), 『海岸景觀に關する基礎的研究』, 東京:東京工業大學工學部修士論文
21. 中村良夫(1982), 『風景學入門』, 東京:中央公論社
22. デュルケム(1978), 『社會學的方法の規準』, 宮島喬 譯, 東京:岩波書店
23. Whorf, Benjamin Lee(1956),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New York: The Techonology Press and John Wiley & Sons